

## 치 사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과 복장유물을 현대적 가치로 조명하고, 수승한 의미를 우리의 삶에까지 생생하게 전하고자 개최하는 학술대회를 깊은 마음으로 축하합니다.

신라시대에 창건한 청량사는 봉화 청량산의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더불어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유서 깊은 사찰입니다. 특히 유리보전에는 건칠상 중 가장 오래된 고려초기의 건칠약사여래좌상이 봉안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복장유물과 함께 보물 제1919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건칠불은 흙으로 만든 형태에 삼베를 입힌 후, 반복적으로 옷칠을 하여 조성하였기에, 그 자체로 문화와 예술적 가치가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더불어 중수발원문과 함께 초조본 등 고려부터 조선에 이르는 약 40여건의 귀중한 복장유물이 납입되어 있어, 정보와 예경의 의미로서도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당당하고 조화로운 모습과 형식 및 비례 등에서 석굴암 본존불 양식을 충실하게 따르고, 이를 건칠이라는 독특한 재질을 이용하여 모서진 부처님이라는 점에서 학계의 큰 관심을 받아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바탕위에서 후대의 당연한 도리를 다하기 위해 청량사는 선조의 고귀한 정신을 올곧게 찾아내고 현시대의 삶에 그 의미를 살려내고자, 과학적인 조사와 인문학적인 조사들을 오랫동안 병행해 왔습니다. 그 성취로써 오늘 학술대회는 보물 지정을 축하하면서 그동안의 소중한 결실들을 만날 수 있는 뜻 깊은 자리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많은 분들이 새로운 사실들이 증명되고 중요한 진실도 밝혀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기도 합니다.

정진의 마음으로 준비해온 ‘청량사 건칠약사여래좌상과 복장유물 학술

대회'는 민중의 삶을 떠나지 않은 우리 전통문화의 위상을 알리고, 새로운 지표를 제시해 주는 뜻 깊은 대회가 되어줄 것입니다. 이를 계기로 불교미술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고 불교조각 연구가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많은 분들의 관심과 성원을 바라겠습니다.

보물 지정을 위해 진력해 주시고 그 성취를 많은 불자와 나누고자 하시는 청량사 회주 지현스님과 주지스님에게 축하와 더불어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더불어 미술사연구회 관계자와 종단 문화부 소임자의 노고를 치하하며, 오늘의 결실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과 일상의 행복으로 전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불기2560년 12월 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자 승